

01 교회소식

실존하는 천국과 지옥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영계를 뚫고 하나님께 받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는 책자를 통해 전 세계 영혼을 깨우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03 기획특집

성결을 향하여

성결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04 간증

“믿어지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목자의 기도로 실존하는 사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 보고 듣고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635호 2014년 5월 2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천국과 지옥,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 실존하는 영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믿어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경작을 통해 무수한 사람이 구원받아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밝히 알려 주셨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자세히 설교함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잠자는 크리스천들을 깨우고 있다(사진 아래는 14개 언어로 발간된 『천국』(상)(하)와 18개 언어로 발간된 『지옥』 책자).

누구나 한번쯤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과연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해답을 찾기도 전에 죽음을 맞거나 사후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 해도 자세히 알지 못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대형 사고나 자연 재해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망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천국은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분이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믿음을 심으

면 천국을 거두게 하시되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 더 좋은 천국 처소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어 주신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책자로 발간했다. 이후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천국』(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천국』(하), 참혹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담은 『지옥』은 다국어로도 번역, 발간됐다.

2014년 현재까지 『천국』(상)(하)는 한글, 영어, 중국어 간체·번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불어, 포르투갈어, 독일, 베트남어, 이태리어, 인니어, 폴란드어 총 14개 언어로 발간됐다. 『지옥』은 이 외에 말레이어, 우르두어, 태국어, 힌디어를 포함한 18개 언어로 번역, 발간돼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고 있다.

국내의 유명 서점과 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는 『천국』, 『지옥』 책자를 접한 독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절절히 느끼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한다고 한결같이 고백한다.

한편,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몸에서 영이 분리돼 낙원을 보고 온 것처럼(고후 12:2), 지난해 5월 25일 금요일야예배 2부 시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주의 종과 일꾼 8명의 영을 한자리에서 분리시켜 지옥 및 음부, 천국의 각 처소를 보고 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성도들은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이재록 목사가 설교한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 더욱 확신함으로 신속한 영적 성장과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관련 간증 4면).

이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밝히 알려 주시며 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농아인 남편이 듣게 되고, 지진의 피해에서 보호받았어요”

티뜻간 분숨 성도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38세)

저는 16년 전에 주님을 영접했지만 선데이 크리스천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10여 년 전부터는 아예 교회에 발길을 끊고 찾지도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치앙라이만민교회(담임 이재원 전도사)에 출석하면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라이만민교회는 GCN 방송(www.gcntv.org)으로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하나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곧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를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정, 미움, 헐기 같은 죄악을 버려야 할 것 등이었지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많아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던지며 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통해 악한 제 모습을 발견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변화되자 신기하게 아들도 말을 잘 듣는 아이로 변했지요.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 있던 아들은 이제 게임을 끊고, 즐기던 세상 노래와 만화 보는 것도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전혀 듣지 못하던 농아인 남편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귀가 열려 소리를 감지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만민 찬양을 부를 때는 희미하게 들린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지난 5월 5일 저녁 6시경, 치앙라이에는 진도 6.3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5층 다세대 주택 4층에, 꼭대기 층에는 성도님이 살고 있었지요. 다른 집들은 강진으로 인해 벽에 금이 가고 천장이 내려앉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의 집과 성도님 집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강진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 기획특집\_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 성결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사랑스러운 자녀가 무서운 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다면 부모는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을 텐데’ 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인간 경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며, 하나님께서는 왜 성결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 1. 성결의 의미와 중요성

성결의 사전적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함’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성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고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을 닮아감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사명이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내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신 까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따라서 성결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

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이지요.

이러한 은혜를 맛보고 다시 죄 가운데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히 6:4~6). 계속해 죄를 버리지 않고 짐짓 범죄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구속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성결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 2. 마음의 성결을 이루려면

그러면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니 당연히 성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심비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 행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 나갈 것이니 결코 힘들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판단 정죄하지 말라” 등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등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들이 있지요. 이와 같은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싸워 버리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진리가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구슬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곧 성결을 향해 가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결되는 만큼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버릴수록 그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라 해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악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수한 복음의 진수를 전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만민을 깨우고 있는 사랑과 권능의 목회자.

1982년 장년 9명과 어린이 4명이 모여 시작된 만민중앙교회를 성령의 역사 속에 전 세계 1만여 지·협력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초대 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입증하신 것처럼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을 통해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고 있다.

2000년부터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에스토니아 등에서 대규모 연합집회 부흥사로 활발하게 사역해 왔으며 집회 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CNN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220여 개국에 중계됐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뤄 드리고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

www.drlee.or.kr

버리고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 처소와 상급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죄를 싸워 버려 성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결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3. 하나님께서 성결을 원하시는 이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면서 성결되라(히 12:4)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결을 원하시는 것이 왜 사랑인지를 알기에 앞서 죄가 들어오기 전의 마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은 악이 없기에 참으로 선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진리와 선만 가르침을 받았기에 상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자 영계의 법칙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응하였습니다.

결국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 모든 권세가 아담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생령 아담이 범죄해 육으로 돌아가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차 죄악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겪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던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실 때, 또한 그들이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받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사람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권세를 다시 찾아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면 됩니다. 즉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만큼 힘이 되므로 성결이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해 원수 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결된 만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육의 한계를 넘어 영계를 뚫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을 이뤄야 사랑 자체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영적인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결을 이루라 하심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요, 첫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모든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 성결로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성결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죄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악에서 돌아켜 회개하도록 만드셨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친히 보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을 세워 주심으로 믿는 이들이 더욱 성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 해도 교과서를 보고 혼자 독학하는 것과 실제로 선생님이 모본을 보여 주면서 가르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눈에 보여지는 본보기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결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친히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법사에 본이 되어 주셨지요. 예를 들어,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일흔 번의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를 베푸심으로 그 행함을 좇아 우리도 사랑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섬기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피조물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온전히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진정 흠이 없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되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의 사전적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성결이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고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5 MAY 2014.5.25~5.3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3차 영혼육 10-14
- 우리의 총만은 창세기 강해 107
- 사랑 2-5 일곱교회 22-25
- 성령의 9가지 열매 1
- 믿음을 책망하시니 8-12
- 요한일서 강해 24-28
- 축복 5 우리 삶의 등불 13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4(이수진 목사)
- 마음의 향 2(이미영 목사)
- 영의세계 17(이희선 목사)
- 생령수 10-11 / 믿음의 분량 2(신동호 목사)
- MIS강의 9 / 열재앙 1(장구영 목사)
- 목자의 마음(천우진 전도사)
- 큰계명(강경희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8
- 옛날 옛적에 4
- 모두 드려요 8
- 흥겨운 소리 4
- 아름다운 예배 7-8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27
- 찬양드려요 27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3
- 황기 27
- English 13-14
- 뷰티풀라이프 3
- 폴리리스트 12-14

**해외선교회 프로그램**

- 인도연합대성회 4
- 회상 2, 5, 6, 8

GCN 방송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 “주님 은혜로 제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김환상 성도 (1대대 9교구, 55세)

임영자 권찰 (2대대 16교구, 63세)

“휘황찬란한 천국의 꽃밭을 본 저는 매우 평화롭고 황홀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 5월, 금요철야예배 시 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성결한 주의 종과 일꾼들이 한자리에서 영이 분리돼 지옥 및 음부, 천국의 각 처소를 보고 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던 중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천국의 꽃밭이 보였습니다. 단지 꽃밭만 보임에도 매우 평화롭고 황홀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불못에서 목만 내놓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뒤 저는 당회장님 저서 『천국』, 『지옥』을 읽으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됐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천국 소망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이러한 체험은 제 신앙의 밑거름이 됐고,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함은 물론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에서 부기관장 사명도 맡아 감당하고 있지요. 온 가족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닥시오케스트라 단원인 딸 오승희 권사의 강청에 의해 작년 5월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2부 시 지옥 및 음부, 천국의 각 처소를 보고 오신 분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졌고, 특히 지옥의 참상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교회에 다니다가는 지옥에 가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 주일예배는 물론 수요일예배, 금요철야예배까지 드리기 시작했고, 십일조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TV 드라마가 싫어지고 GCN 방송을 통해 당회장님의 설교와 찬양 듣기를 즐겨했지요. 이제는 교회에 오면 천국에 온 것처럼 행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니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에도 축복이 넘칩니다. 요즘은 손님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주시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06년 5월, 군 입대 후 저는 어머니가 보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저서 『천국』, 『지옥』 등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책자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저는 ‘전역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지요.

그런데 2008년 전역을 앞두고 포상휴가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꿈속에서 친구들과 술 마시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공중강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공중강림하시는구나.’ 하는 순간, 저는 심판대 위에 서게 됐고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다에 모든 행실이 비쳐졌습니다. 저는 ‘낙원은 가겠지, 구원은 받겠지.’ 막연히 생각했는데 매우 놀랐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일말의 선(善)도 제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심판이 결정나는 듯 하더니 곧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부림을 치다가 잠에서 깨어 꿈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울다 지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제가 지옥 유향 못(계 20:10)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글부글 끓는 유향 못에 목만 내놓고 있었고, 제 주위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아우성쳤고, 저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박형배 형제 (4청년선교회, 29세)



“금빛 찬란한 집들, 천사들,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살려 주세요! 제발 저를 이곳에서 꺼내 주세요!”

몇 번을 외치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인 한 분이 제 머리 위에 오시더니 손을 내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분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당회장님의 발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이 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이로 인해 2008년 5월 전역 후 제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금빛 찬란한 집들, 형언할 수 없는 장식품, 그 위를 걸어가도 망가지지 않는 꽃들, 천사들 등을 보았습니다. 꿈을 깬 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던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믿음의 분량대로 천국의 처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에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니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온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행복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8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성룡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2489-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